# 서울시 뉴노멀시대 여가활성화 정책 주요 과제는 여가소외층, 사회성 여가활동, 여가시설 안전관리

##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민 여가행태 변화, 유지 가능성 높아 조사 필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지표는 세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일과 삶의 균형을 이뤄 국민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여러 정책이 추진되었다. 노동시간 감소정책을 꾸준히 펼친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가 정착되었고, 상대적으로 국민의 여가시간과 여가소비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가활동 참여는 개인의 욕구나 취향보다 경제적 여건 등 사회적, 구조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불평등이 일어나기 쉬운 대표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정부는 2015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고, 2018년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가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도 2017년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가정책을 수행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가정책은 시민의 여가활동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의 여가행태는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감소, 고령화, 1인가구 증가 같은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와 4차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조사로 현황을 파악하려면 조사항목 설계에 사회변화를 유연하게 포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민의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차에 접어들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여가행태 변화의 일부는 이후 뉴노멀 사회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여기인식·행태변화 조사, 서울시민 2,500명 대상 10일간 온라인으로 시행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민의 여가 인식과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미래 여가활동 행태를 전망해 볼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여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 코로나19 전후 여가활동, 코로나19가 여가활동에 미친 영향, 향후(위드코로나 시기) 여가행태 변화와 과제로 구성했다.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 여가행태 변화 조사내용**

| 구분 | 세부 문항 | |
|---|---|---|
| A. 여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여가활동 중요도와 여가활동 정도<br>-여가활동 목적 | |
| B. 코로나19 전후 여가활동 | 코로나19 이전 | -가장 많이 한 활동, 동반자, 빈도<br>-여가시간/비용 충분도<br>-주로 이용하는 여가시설 |
| | 코로나19 이후 | -가장 많이 한 활동, 동반자, 빈도<br>-여가시간 충분도, 평일/휴일 여가시간<br>-여가비용 충분도, 월평균 여가비용<br>-주로 이용하는 여가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의 적절성 |
| C. 코로나19가 여가활동에 미친 영향 | -가장 많이 늘어난/줄어든 활동<br>-여가시간, 비용, 행태, 장소, 만족도 변화<br>-여가 효과 경험<br>-온라인 기반 여가활동 변화<br>-동호회 활동 변화<br>-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여가활동 어려움 경험<br>-방역과 여가활동 유지에 대한 인식 | |
| D. 향후(위드코로나) 여가행태 변화와 과제 | -위드코로나 긍정적/부정적 영향<br>-위드코로나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행태 변화<br>-위드코로나 여가활성화 저해 요소<br>-코로나19 종식 시기, 여가행태 변화 영향<br>-코로나19 종식 시 가장 하고 싶은/온라인 활용비중을 늘리고 싶은 활동<br>-사회변화가 여가활동의 위축/활성화에 미치는 영향<br>-여가시설 개선 및 확충방안<br>-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
| S. 일반사항 | -성, 연령, 학력, 가족 수, 결혼 여부, 미성년자녀 유무, 가구소득, 직업<br>-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직업변동/가구소득 변동<br>-여가에 대한 태도 | |

## 코로나19 이후 개인적·소극적 여가활동 늘고 사회성 여가활동·만족도 하락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 여가 변화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여가활동의 개인화' 현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결과,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TV 시청이나 동영상시청, 휴식활동 등이 늘어난 반면, 국내여행, 해외여행, 현장관람, 야외운동 등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크게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전후의 서울시민 여가활동 유형을 비교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문화예술관람, 관광활동, 취미활동 등 다양한 유형의 여가활동을 했지만, 이후에는 휴식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극적인 형태의 여가활동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국민의 여가특성은 개인적, 소극적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중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물리적 제약으로 이들 특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실제로 행복감을 증진하는 여가활동은 개인 중심의 소극적 여가활동이 아니라 사회성 여가와 적극적 여가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성 여가활동은 타인이나 사회와 적극 관계를 맺고 자신의 취미나 관심에 근거를 둔 활동을 수행하여 개인적·사회적 가치를 모두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적극적 여가는 미술활동, 테니스, 캠핑, 등산처럼 문화·예술 활동과 스포츠 활동, 관광활동, 취미활동을 의미하며, 소극적 여가는 TV 시청, 낮잠, 음악감상 등 휴식활동을 일컫는다. 앞서 살펴본 개인적 여가활동은 소극적 여가활동과, 사회적 여가활동은 적극적 여가활동과 상관관계가 높다.

이번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여가활동 시간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휴식 중심의 혼자 하는 소극적 여가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의 여가만족도는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이후 여가생활의 전반적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46.4%였고, 특히 50대(52.1%)와 60대 이상(54.3%)에서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 온라인기반 여가 확대, 공간·시간 제약 없지만 사회성 여가 위축 초래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활동의 제한으로 온라인 기반 비대면 여가문화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동안 4차산업혁명의 진전과 디지털기술의 발전 속에서 온라인 기반 여가활동이 크게 성장했다. 그 흐름에 더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기반 여가활동이 급속히

확대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기반 여가활동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1.8%로 과반수에 이르렀다. 특히, 온라인활동 익숙집단의 62.4%, 여가활동 열성자집단의 64.3%가 온라인 기반 여가활동이 늘어났다고 응답하였다. 평소 여가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라인에 익숙한 사람들이 더욱 쉽게 온라인 여가문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짐작된다. 온라인 여가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 온라인 경험이 높게 나왔던 뉴스검색과 웹서핑, 유튜브,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험률이 크게 높아졌다.

온라인 기반 여가활동은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없고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기존의 여가생활을 더욱 확장하고 다양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단조롭고 소극적인 온라인 여가활동은 개인의 건전한 사회교류를 차단하고 고독감, 인터넷 중독, 일탈행동, 야외활동 위축 등의 부정적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것이 소극적 여가활동과 연계되면서 사회성 여가를 저해할 수 있는 측면은 경계해야 한다. 온라인에 기대어 여가활동을 확대하는 청년층에게는 사회와 관계 맺기 관점에서 여가정책의 새로운 과제가 발생한 셈이다. 한편, 디지털 문해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이나 디지털 디바이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층에게 온라인 기반 여가활동은 새로운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시대에 온-오프라인의 균형 있는 여가문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그리고 여가활동으로 어떻게 친구나 동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과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고령층·저소득가구, 온라인·적극적 여가로 전환 못해 여가격차 더 심화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 여가활동 변화 연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여가활동 변화의 효과가 동일하지 않으며, 여가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20대는 전반적으로 온라인 여가활동 경험률이 높으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온라인 게임, e-스포츠 경기 관람, 랜선투어 등의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은 뉴스검색/웹서핑 이외의 활동이 다른 연령대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새로운 여가활동이나 온라인여

가 등으로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경향이 높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반대 경향이 강하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일컬어지는 MZ세대는 온라인 기반 여가활동이 매우 익숙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 또 다른 방식의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여가에 익숙하지 못한 60대는 여가활동의 위축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여가활동의 개인화, 온라인화 등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는 가운데에도, 연령에 따라 실제 변화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여가소외계층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고찰도 요구된다. 이번 조사에서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가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여가활동 자체의 활동빈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적극적인 여가활동보다는 휴식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많으며, 여가활동 장소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집'이 가장 많고, 여가시설이나 장소이용률도 다른 집단에 비해 낮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여가문화로의 전환은 이들의 여가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위기 상황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결국 이들의 여가소외 현상과 여가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 서울시, 제도적 기반·프로그램·공간 아우르는 여가활성화 정책 세워야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여가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서울시민의 여가생활의 질이 낮아지고 사회적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뉴노멀 시대 시민의 행복한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가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뉴노멀 시대 여가정책의 과제로 첫째,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여가 활성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여가활동이 가장 위축되고 여가만족도가 떨어진 고령층과 저소득층 대상의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여가 재사회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사회적, 적극적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둘째, 온-오프 연계형 여가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온라인 기반 비대면 여가활동의 증가는 뉴노멀사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다. 자유롭게 온라인과 디지털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접근성 강화, 자유롭고 안전한 디지털 여가환경 조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정보의 축적과 공유 플랫폼 형성 등 '집에서 혼자 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여가활동의 개인화 현상이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을 완화하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사회성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면 중심의 사회적 관계에 익숙한 고령층은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그리고 청년층은 온라인에서의 활동과 교류에서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여가시설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뉴노멀 시대에는 강제적 비대면 상황에 대한 반대급부로 오프라인 여가공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지역사회 여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 공공 여가문화시설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방역 가이드라인, 방역 설계, 리모델링 지원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여가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민 여가활성화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의 내용은 △서울시민 여가활동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시민 여가활성화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여가활성화 추진체계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서울시에 여가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유관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가정책 추진협의체'를 설치하여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관여하도록 한다. 또한, 여가활성화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서울시민 여가활동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시민여가활성화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여가활동이 행정구역 내에 한정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닌 만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함께 협동조사 형태로 〈수도권 여가활동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